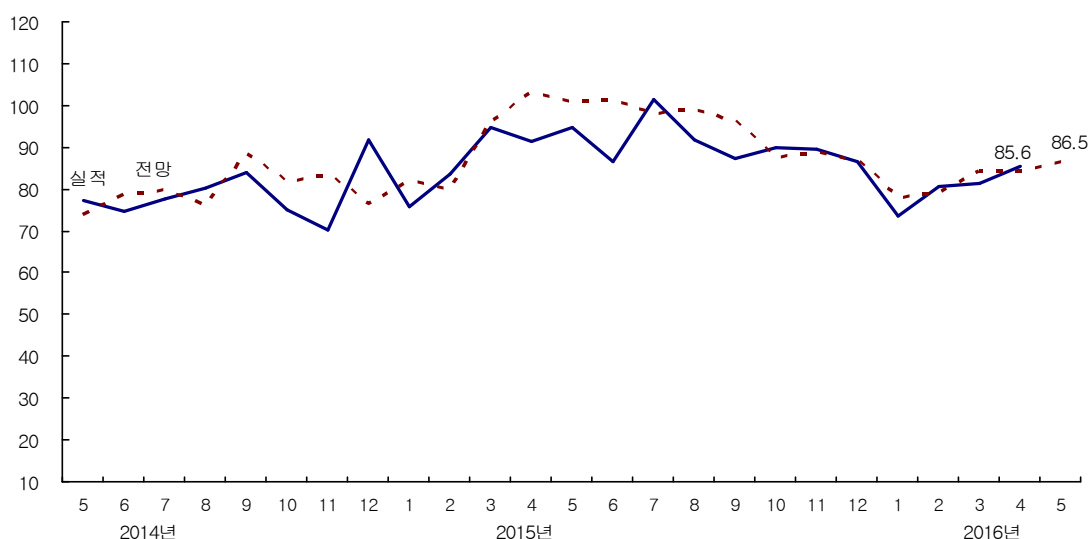


# 2016년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4월 CBSI 전월비 4.2p 상승한 85.6 기록  
3개월 연속 상승, 총선보다는 계절적 요인 영향 판단

- 2016년 4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4.2p 상승한 85.6을 기록함.
  - CBSI는 2015년 11월 이후 주택경기 하락 등의 영향으로 3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올 2월부터 통계적 반락 효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승세를 보임.
  - 4월에도 CBSI가 전월비 소폭 상승함에 따라 CBSI는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으나, 2월 이후 CBSI의 상승 폭은 3개월 동안 총 12.1p에 그침.
  - 한편, 4월 CBSI 상승은 4월 13일에 치러진 총선 영향이라기보다는 공사 발주물량, 신규 주택분양 물량 등이 조금씩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 영향 때문으로 판단됨.
  - 과거 총선 당시 CBSI 변동 폭을 살펴보면, 총선 자체보다는 건설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음(17대 총선이 치러진 2004년 4월은 건설경기 상승국면과 맞물려 20.9p 상승했으나, 건설경기 침체국면에 치러진 2008, 2012년 총선에서는 각각 6.8p, 3.5p 하락).
  - 다만, 3개월 연속 상승에도 불구하고, CBSI 지수 자체는 올 1~3월을 제외하면 14개월 내 최저 수준에 불과해 건설기업 체감경기는 아직 작년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됨.

< 건설경기 BSI 추이 >



- 기업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과 중견은 전월과 비슷한 가운데,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대비 10p 이상 상승해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남.
  - － 대형기업 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00.0을 기록
  - － 중견기업 지수는 전월보다 소폭 0.5p 상승한 83.8을 기록, 3개월 연속 80선에서 정체함.
  - －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보다 13.4p 상승한 70.8을 기록, 비록 규모별로는 지수 수준이 가장 낮지만, 전월보다 10p 이상 상승해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함.

< 규모별 · 지역별 건설경기 BSI 추이 >

구 분	2015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86.7	101.3	91.6	87.2	89.9	89.5	86.7	73.5	80.8	81.4	85.6	84.4	86.5
규모 별	대형	100.0	125.0	107.7	100.0	100.0	92.3	100.0	92.3	100.0	100.0	92.3	100.0
	중견	91.9	94.7	91.9	93.9	102.8	102.9	93.8	76.5	88.9	83.3	83.8	91.9
	중소	65.3	80.9	72.5	64.6	63.3	71.1	63.0	47.9	58.0	57.4	70.8	64.6
지역 별	서울	97.4	115.2	100.5	97.2	100.6	98.2	99.0	88.3	93.0	91.9	91.0	92.1
	지방	71.0	80.4	78.4	72.4	74.3	75.9	66.2	51.5	61.9	66.5	77.9	78.6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16년 5월 CBSI 전망치는 4월 실적치 대비 0.9p 높은 86.5를 기록함.
  -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높은 것은 5월에는 건설경기가 4월보다 좀 더 개선될 것으로 건설기업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통상 5월에도 계절적 요인에 의해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망치의 상승 폭이 크지 않아 5월 CBSI는 소폭 개선되는데 그칠 전망이다.
  - － 5월 CBSI는 5월에 집중되어 있는 주택분양사업의 분양 실적, 공공 공사 발주물량 등에 가장 크게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지역별로 4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기업이 전월보다 0.9p 소폭 하락한 91.0을 기록, 지방기업은 11.4p 상승한 77.9를 기록함.
  - － 서울기업 지수는 전월보다 소폭 0.9p 감소한 91.0을 기록함. 지수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90선에서 정체한 모습임.
  - － 한편, 지방기업 지수의 경우 11.4p 상승한 77.9를 기록함. 최근 9개월 동안 가장 양호한 수치를 기록함.

## 신규 공사수주 지수 전월비 6.2p 감소한 81.0 기록

- 2016년 4월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 대비 6.2p 감소한 81.0을 기록함.
  - － 신규공사 수주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개월 연속 하락한 결과, 지수가 80.5까지 후퇴하였음.
  - － 3월에 들어와 지수가 6.7p 반등하였는데, 4월에 다시 6.2p 하락함으로써, 지수가 2월(80.5)과 비슷한 81.0을 기록함.
  - － 비록, 4월에 충선을 앞두고 일부 공공수주 발주가 증가하였으나, 충선 이후 공공 물량이 다시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최근 회복을 이끈 주택수주가 부진한데 따른 결과로 판단됨.
- 공종별로 살펴보면, 비주택은 지수가 개선됐으나, 토목과 주택이 전월비 감소함.
  - － 토목의 신규 공사수주 지난 3월 정부가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해 1/4분기 SOC 발주를 증가한 결과로 전월보다 12.2p 상승한 85.6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4월에는 이보다 3.2p 감소한 82.4를 기록해 부진한 모습을 보임.
  - － 한편, 주택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보다 8.2p 감소한 81.8을 기록, 공종별로 가장 부진하였음.
  - － 비주택 건축공사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 대비 6.2p 상승한 85.9를 기록 공종별로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임.
- 기업 규모별로는 신규 공사수주 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은 전월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중견과 중소기업의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 대형기업의 신규 공사수주는 전월 보다 0.6p 상승한 108.3을 기록함. 공종별로 비주택이 24.4p 상승한 116.7로 양호한 모습을 보임. 주택 또한 108.3으로 전월보다 신규수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중견기업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대비 13.1p 하락한 73.0을 기록, 3월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공종별로 비주택이 73.0으로 가장 낮았으며, 토목 또한 75.7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한편, 중소기업의 신규 공사수주 지수는 전월보다 6.4p 하락한 58.0을 기록

합. 토목이 전월보다 1.3p 상승한 69.4를 기록, 비주택도 0.8p 상승한 64.6으로 전월보다 소폭 개선되었으나, 주택이 6.5p 감소한 52.2로 부진하였음.

**< 신규 공사수주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81.0	108.3	73.0	58.0	92.4	64.1
	전망	89.8	100.0	97.3	69.4	95.9	80.9
토목	실적	82.4	100.0	75.7	69.4	85.2	78.3
	전망	83.6	91.7	86.5	70.8	84.9	81.7
주택	실적	81.8	108.3	80.6	52.2	94.2	63.2
	전망	93.4	108.3	102.8	65.2	102.5	79.9
비주택	실적	85.9	116.7	73.0	64.6	98.5	68.0
	전망	85.3	91.7	91.9	70.2	88.1	81.2

주 : 실적은 2016년 4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5월 예측지수임.

- 한편, 2016년 5월 신규 공사수주 전망지수는 4월보다 8.8p 상승한 89.8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지수가 90선으로 근접할 것으로 전망해 수주 물량침체 상황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공종별로, 주택이 93.4로 가장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다음으로 비주택이 85.3, 토목이 83.6으로 전망함.

**건설공사 기성 지수 전월보다 0.6p 하락한 91.2 기록**  
**수주잔고 지수는 전월보다 4.2p 상승한 81.6 기록**

- 4월 건설공사 기성 지수는 전월보다 0.6p 소폭 하락한 91.2를 기록함.
- 건설공사 기성지수는 작년 8~10월 기준선(100.0)을 넘어 양호했음. 그러나, 11~12월에 90선으로 하락한 이후 올해 1~2월에 80선 중반으로 떨어짐.
- 3월에는 5.3p 상승한 91.8로 3개월 만에 다시 90선을 회복하였으며, 4월에도 91.2를 기록해 2개월 연속 90선을 기록함.
- 업체 규모별로, 대형이 전월보다 지수가 7.7p 하락한 100.0로 대형업체의 기성이 전월과 비슷한 실적을 보였던 것으로 분석됨.
- 중견과 중소의 경우 각각 전월보다 2.9p 3.8p 상승한 94.4와 70.2를 기록, 지수가 개선됨.

- 한편, 2016년 5월 전체 건설공사 기성 지수 전망치는 91.4로 4월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함.
- 4월 수주잔고 지수는 전월보다 4.2p 상승한 81.6을 기록함.
  - 지난 3월 지수가 전월보다 10p 이상 하락하였는데 4월에는 이 반등효과로 4.2p 상승한 81.6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됨.
  - 업체 규모별로, 대형기업의 수주잔고 지수는 전월보다 8.3p 상승한 108.3을 기록하였으며, 중견과 중소 업체도 각각 2.7p 1.0p 상승한 69.4, 64를 기록함.
  - 비록 지수가 전월보다 증가하였어도, 중견과 중소 기업의 지수 수준이 70선에도 미치지 못해 수주 잔고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한편, 2016년 5월 전체 수주잔고 지수 전망치는 4월보다 3.0p 상승한 84.6로 전망함.

**< 건설공사 기성 및 수주잔고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건설공사 기성	실적	91.2	100.0	97.3	74.0	98.4	80.6
	전망	91.4	100.0	105.4	65.3	103.2	74.0
수주 잔고	실적	81.6	108.3	69.4	64.0	89.3	70.1
	전망	84.6	100.0	89.2	61.2	90.3	76.3

주 : 실적은 2016년 4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5월 예측지수임.

- 4월 자금 지수를 살펴보면 공사대금 지수가 전월보다 4.3p 상승한 92.0을 기록해 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공사대금 지수는 전월보다 4.3p 상승한 92.0으로 지수가 90선을 넘어 다소 긍정적인 모습을 보임.
  - 한편, 자금조달 지수 또한 전월보다 3.5p 상승한 82.7로 지수가 개선됨. 다만, 작년 하반기 90선을 넘어섰던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작년보다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자금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	실적	92.0	108.3	94.6	70.0	102.5	76.8
		전망	94.9	108.3	94.6	79.6	101.7	85.5
	자금조달	실적	82.7	100.0	83.8	61.2	90.5	71.6
		전망	85.4	100.0	86.1	67.3	92.4	75.6

주 : 실적은 2016년 4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5월 예측지수임.

끝.